

나무처럼 단단한 기백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 찾은 나의 꿈

- 이름 : 강다영
- 근무기구 및 부서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운영자원 및 행정재무팀
- 직위/직급 : 인턴
- 지원경로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청년인재
- 근무기간 : 2023.08. - 2023.10.

지원 계기 및 준비과정; 막연한 이상을 현실로

아버지의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중학생 때 짧게나마 약 8개월간 국제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업을 듣는 국제학교에서 경험은 나의 진로 가치관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외에도 잘 적응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바탕으로 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찾고 있었다.

농업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산림전공 학부생이 되어 국내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국제 환경 협력 분야 전문가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었다. 3학년이 되어 ‘가능성의 상태로는 그 어떤 진로도 결정하지 못할 것’ 이라 생각이 들었고, 학교와는 다른 배움을 찾하고자 휴학하였다. 영화제 스태프, 외교부 서포터스 등 그간 학업을 이유로 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성취를 차곡차곡 쌓았다. 휴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AFoCO 사무국에 인턴을 파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청년인재’ 공고를 확인하였다. 학부생으로 국제기구 인턴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여 망설였으나 친구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자신감을 얻었다. 직무기술서와 경험을 일치시켜 국영문 자기소개서와 영문 이력서, 2)CV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때까지 해왔던 활동

1)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Curriculum Vitae의 약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이력을 정리한 지원서

들에서 배운 점을 토대로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열정과 진심이 닿았는지 영어 면접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한 후 운이 좋게 인턴으로 합격하였다.

인턴 파견 전, 산림교육원에서 진행된 산림 분야 실무진분들의 강연을 통해 국제산림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역량을 더욱 함양하고자 회화 수업을 수강하였고 여의도 사무국에서 출퇴근해야 했기에 지방에서 상경하며 여름을 바쁘게 보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 분야 정부 간 국제기구로 2012년 출범하였다. 현재 AFoCO의 회원국은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한국,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14개 당사국과 옵서버 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산림복원·복구 모델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산림재해 관리방안 도입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산촌 기반 소규모 기업 육성 및 조직역량 강화 등 총 5개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산림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산림 전공과 국제개발협력 전공자 뿐만 아니라 해외산림 공무원분들도 fellowship(펠로우십)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의도 사무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인턴의 주요 업무 소개와 성과

근무 기간이 짧아 장기간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려워 행사와 총회 준비를 하기로 3)ToR에 서명하였다. 인턴의 주요 업무는 크게 「Let's Forest 2023, 서울」 기획 및 운영지원과 ATD(Annual Thematic Dialog) 및 총회(General Assembly) 준비 및 참여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했던 업무들과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Terms of Reference, 인턴으로 근무하며 맡은 업무사안들을 정리한 직무기술서

1. 「Let's Forest 2023, 서울」 기획 및 운영 지원

1) 기획 준비

선유도공원에서 진행되는 AFoCO의 첫 야외 행사였다. 물품 대여 업체 선정을 위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업체들을 최종 선정하였고, 개막식 동선 및 아포코 인포월에 필요한 내용들을 리서치하며 시민환경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행사의 국·영문 사전 홍보 콘텐츠 제작(포스터, 홈페이지용 기사,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개회사 초안)을 담당하였고 현수막 레퍼런스를 디자인하였다. 스태프로 일한 경험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2) 참여 보조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행사 기관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분들께도 간략하게 행사의 취지와 관람 방법에 대해 영어로 소개해드렸다. 기억나는 외국인 관람객은 인스타그램에서 노마드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분이다. 한국어로는 작가분들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영어로는 없어 직접 알려드렸고 큐레이팅 계정에 1달 동안 AFoCO에서 기획했던 「Let's Forest 2023, 서울」 전시가 업로드되어 좋은 반응을 끌어내 보람을 느꼈다.

3) 행사 마무리 단계

전문관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현장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신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행사 기간 내에 발생한 개인 결제를 정리하여 회계부서에 전달하였다. 더불어 행사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도 새롭게 활용될 예정이라 「Let's Forest 2023, 서울」 초안 및 최종파일들을 정리하여 담당자분께 전달하였다.

4) 결과

주말에는 200명 이상 선유도공원에 방문하고 산불 피해목 관련 체험행사 전 회차가 매진되는 등 산림에 대한 민간 분야 인식과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분들에게도 영어로 소개해 드리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종이 리플렛 수거함을 따로 제작하여 자원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사 취지에 걸맞게 기획하였다.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보고 채택되어 실제로 행사에서 구현되니 무척 뿌듯하였다.

2. ATD(Annual Thematic Dialog) 및 총회(General Assembly) 준비 및 참여

1) 초청 및 총회 준비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CF(녹색기후기금),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등 산림환경 관련 국제기구 연사님들을 메일로 초청하였다. RSVP를 바탕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항공권, 숙박시설 및 버스 수송과 관련된 정보들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였다.

2) ATD 및 총회 참여 보조

ATD(Annual Thematic Dialog)에서는 외국인 펠로우십 선생님과 함께 QnA세션 정리를 맡았다. 그간 산림 관련 기사들을 읽어왔던 것이 세션 정리를 할 때 도움이 주었다. 더불어 영어를 사용하여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유창하고 격식 있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총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호텔에서 숙박하며 게스트분들의 인솔을 담당하였고 QnA 세션 정리를 맡았다. 회의실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줌으로 참여하며 국제 산림 관리 및 보전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산림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3) 행사 마무리 단계

List of delegates 정리 등 결과보고서 발간을 보조하였다. 국제기구의 총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마무리되는지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총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공개가 되지 않기에 궁금했었다. 총회 기간 내내 현장에서 어떤 담론이 이루어지는지 알 기회여서 뜻깊었고 국제기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를 알 수 있었다.

업무를 통한 성장-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3개월간의 인턴 업무로서 장기간의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는 어려웠으나 큰 2개

행사를 맡았고 무사히 완수하였다. 산림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국제기구에서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사기업 근무와는 다르게 국제기구의 업무는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업무가 균일하지 않았다. 마감기한에 맞추어 일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초반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나 전문관님께 코디네이터님들께서도 항상 업무와 관련하여 인턴들을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며 피드백을 항상 부탁드리면서 성장하고자 노력하였다. 타 부서의 전문관님들께서도 직속 전문관님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질문에 개방적인 자세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으며 진로와 관련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하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애정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용기와 담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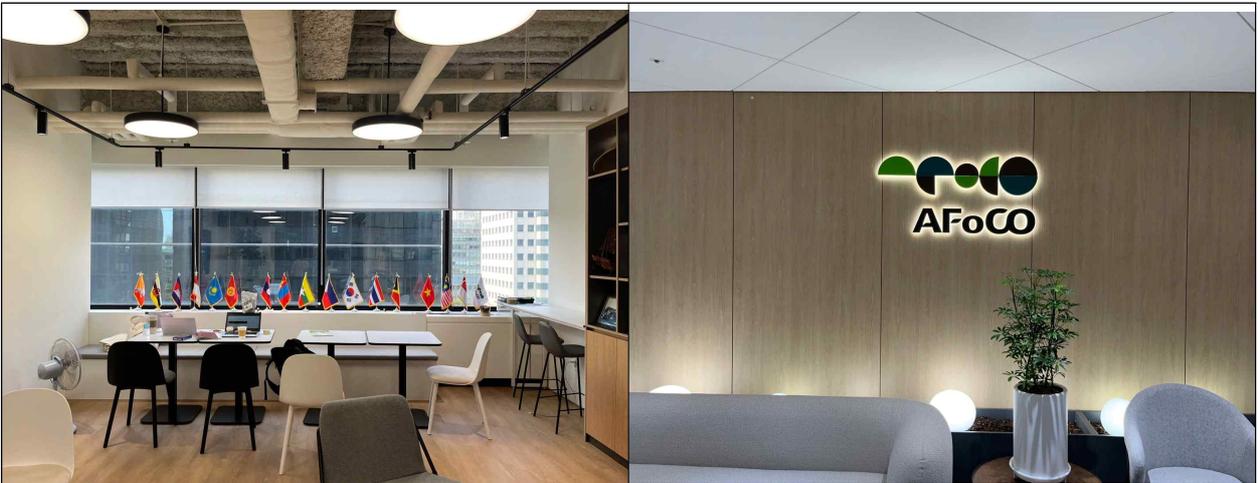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간의 근무 경험을 통해 학부 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큰 목표 ‘환경외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젠 확실해졌고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하며 단단해지는 것처럼 나 또한 나무처럼 단단함과 기백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현재는 조급함보다는 용기를 갖고 꾸준히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다. 국제산림 분야 협력과 환경외교에 관심이 있기에 스페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후 JPO, 중남미지역기구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학부생이지만 국제기구 인턴으로서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림전공 중에서도 국제산림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과 직무기술서와 일치하는 경험 덕분이라 짐작한다. 특히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인턴십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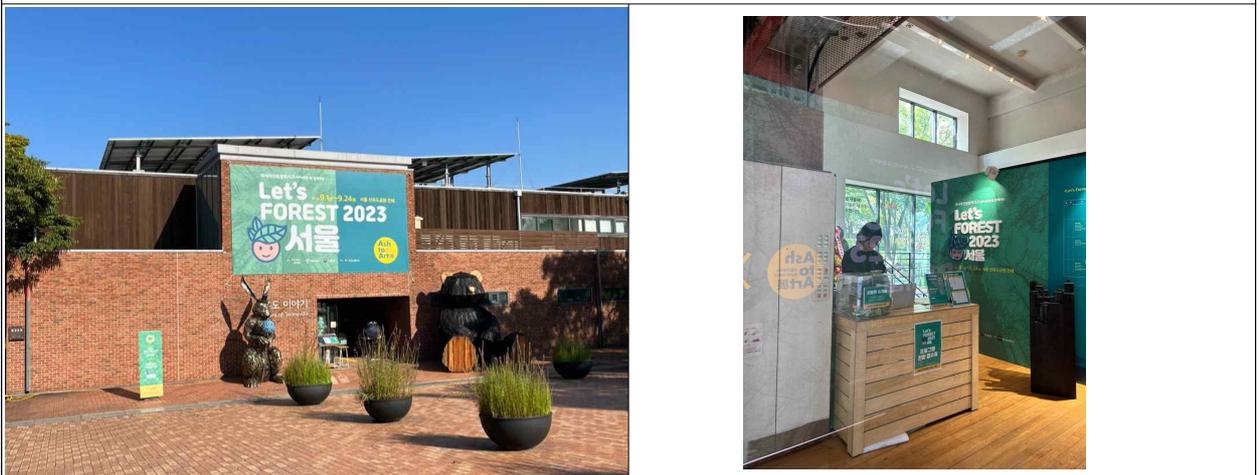
다보니 uncareer 사이트보다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산림 청년인재 프로그램은 매년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올해부터 OASIS 프로그램도 AFoCO에 인턴을 파견한다. 전공과는 직접적으로 크게 상관없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경험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었다.

과거의 필자처럼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기를 작성한다. 나에게서는 인턴 준비 기간부터 근무 기간까지 매 순간이 배움과 감사의 기회였고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 다가가겠다는 용기와 도전이 기백이 되어 당신에게도 멋진 경험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

별첨



여의도 사무국



선유도 「Let's Forest 2023, 서울」 행사



ATD(Annual Thematic Dialog) 및 총회(General Assembly)